

제 1 교시

국어 영역 (A형)

[1~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형 : 윤서야! (가까이 가서 좀 더 큰 소리로) 윤서야! 뭐하느라고 내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듣니?

윤서 : 어? 언제 왔어? ㉠ 여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

지형 : 오늘은 내가 일찍 온 줄 알았는데. 역시 정윤서 약속 잘 지키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근데 그거 무슨 책이야?

윤서 : 지형이 너도 역사에 관심이 많지? 이걸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쓴 책인데, 내가 읽고 빌려줄게.

지형 : ㉡ 그래? 정말 재미있어? 기대된다. 지난번에도 네가 추천해 준 책이 참 좋았거든.

윤서 :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괜히 뿌듯하고 기분도 좋은걸. 근데 왜 만나자고 한 거야? 상의할 일이라는 게 뭘데?

지형 : 곧 체육대회가 열리잖아. 난 우리 반의 명예를 걸고 꼭 우승하고 싶거든. 그래서 학급 회의를 하기 전에 어느 종목에 누가 적당한지 너랑 먼저 얘기해 보고 싶어서.

윤서 : 아, 그랬구나.

지형 : 달리는 아무래도 재웅이를 따라갈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보니 재웅이가 축구도 잘하지?

윤서 : 재웅이가 운동을 잘하긴 하지. 다빈이도 그렇잖아. 그런데 지형아,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만 체육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체육대회가 의미 없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

지형 :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윤서 : 이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 나도 운동을 못해서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들러리가 된 기분이 들곤 했거든. 학급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쉽기도 했고.

지형 : ㉤ 윤서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 줘서 고마워. 네 말대로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야말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마 아이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체육대회에서 우승하기를 원할 텐데, 이런 뜻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윤서 : 음, 아이들에게 체육대회의 취지를 먼저 설명한 후에 설득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

1. 위 대화를 고려할 때 ㉠~㉥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메시지의 전달 여부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② ㉡ : 상대의 말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한다.
- ③ ㉢ : 구두 언어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④ ㉣ :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⑤ ㉤ :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분석하여 대화에 참여한다.

2.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체육대회는 감춰져 있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부각해 봐. 우리 반을 대표하여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 ② 체육대회는 경쟁보다 함께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행사임을 알려 줘야 해. 다 같이 즐기고 참여하는 것이 우승보다 더 값진 경험이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할 거야.
- ③ 네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체육대회에 대한 반 친구들의 생각을 먼저 수렴하는 게 어때?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친구들도 네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거야.
- ④ 체육대회는 심신의 단련을 통해 학업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아이들의 기대가 커질 것 같은데?
- ⑤ 다른 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지 먼저 조사해 보고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도 체육대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3. 다음은 면접의 일부이다. 면접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지원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지원한 김슬기입니다.
- 면접관:** 이쪽으로 앉으세요. 긴장 풀고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과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지원자:** 네, 저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 이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보육 시설에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희를 어디로 보내야 좋을지 고민하셨고, 그런 부모님을 보며 믿을 수 있는 곳에 아이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 면접관:** 다시 말하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시설이나 선생님이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 지원자:** 네, 일곱 살 때 다녔던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언젠가 제가 심하게 체해서 밤새 앓고 유치원에 갔던 날, 보건실에 누워 있는 저를 선생님들께서 번갈아 보살펴 주셨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께서 점심 식사도 거르신 채 저를 돌봐 주셨고,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 수시로 연락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그 선생님 얘기를 종종 하실 정도입니다.
- 면접관:** 본인의 어떤 점이 유치원 교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자:** 제 장점과 진로 적합성을 연결시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진심을 담아 사람을 대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고 잘 놀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잘 따릅니다.
- 면접관:** 유치원 교사의 향후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사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곧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① 면접관은 지원자의 답변을 정리하여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고 있다.
- ②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화제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통해 지원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고 있다.
- ③ 지원자는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추론하여 가치관의 차이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지원자는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예로 들어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지원자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핵심이 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5]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사진을 보여 주면서)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알겠어요? (대답을 듣고)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네요. 바로 목 디스크 질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목이 빠근하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있지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이 질환이 많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 (그림을 보여 주면서) 척추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이 있는데, 이것을 디스크라고도 합니다. 여러 원인으로 퇴행된 목 근육과 인대는 목뼈를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하게 되어 목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죠. 이는 목 디스크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퇴행된 디스크가 척추 뼈 사이에서 빠져 나와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목 디스크 질환입니다.
- 목 디스크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로 인한 척추 변형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목의 근육과 인대를 퇴행시킵니다. 또 학업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는 목 주변의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여 목 디스크에 부담을 증가시켜 질환을 유발하게 되지요. 최근에는 IT기기 사용의 급증으로 젊은 층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 디스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하는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IT기기의 사용 시간은 줄이고, 공부하다가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 목 디스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 드릴까요? (대답을 듣고) 다들 좋아하시네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열 가지이지만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어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대학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며) 먼저 머리 젖히기입니다. 다음은 목 옆으로 젖히기입니다.
-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와 과도한 IT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목 디스크 질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다음은 학생이 발표하기 전에 작성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1. 발표 유형: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 ①
2. 청중 분석
가. 대상: 학급 친구들
나. 사전 지식: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을 것임 ②
3. 내용 조직
가. 도입: 화제 제시 및 배경 설명
나. 전개
○ 목 디스크 질환 설명
○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 제시
• 잘못된 자세로 인한 척추 변형
•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의 손상 ③
• 심한 스트레스 및 IT기기 사용의 급증
○ 목 디스크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안내 ④
다. 정리: 발표 내용 요약 ⑤

5. 위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
군.
 - ②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
고 있군.
 - ③ 어려운 전문 용어를 다른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여 청중의 이
해를 돕고 있군.
 - ④ 청중에게 질의하고 그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
을 강화하고 있군.
 - ⑤ 주어진 시간에 맞게 발표하기 위해 계획된 발표 내용을 적절
하게 재구성하고 있군.

[6~7] 다음은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박경준입니다. 7월 교내 캠페인은 ‘고운 말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해서입니다.

우선 우리의 실제 언어생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등·하교 시간의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끼리 하는 대화 중에 욕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의식 없이 욕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의 일상화된 욕설 사용이 신문에 보도될 정도이며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끼리 욕설을 섞어 말하는 것이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욕설을 많이 사용하면 욕설에 점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욕설은 우리의 인격 형성이나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욕설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다양한 방식의 언어폭력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오히려 친구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로잡아 욕설이 없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자의 정서가 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친교적 관계 형성을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② 필자의 주장이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③ 예상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필자와 독자가 소통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④ 상황 맥락을 고려해 글쓰기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전략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표현 행위이다.
 - ⑤ 특정한 독자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개인의 미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7. 윗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욕설 사용 실태 보고서

1. 성인

2. 청소년

(나) 설문 조사

1. 청소년의 욕설 사용 이유

사용 이유	응답(%)
습관적으로	41
친구들이 사용하니까	23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19
친근감을 드러내기 위해	17

2. 욕설을 들었을 때의 느낌

느낌	응답(%)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었다	47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싶었다	45
아무렇지도 않았다	8

(다) 신문 기사

□□고등학교에서는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따돌림, 신체 폭력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고운 말 동아리 활동, 욕설 안 하기 다짐 행사, 욕설 근절 교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학교 차원의 노력이 언어폭력을 감소시켜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 신문 —

- ① (가)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이 욕설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② (나)-2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욕설이 인격 형성이나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넷째 단락에서 언급한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로 잡는 캠페인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와 (나)-1을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 욕설 사용의 주된 이유가 스트레스에 있음을 보완한다.
- ⑤ (나)-2와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 욕설 대신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친구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추가한다.

8.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맞게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대형 마트는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과 묶음 포장 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야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퇴근이 늦은 직장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가 생기면 고용 창출 효과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마트 주변으로 손님들이 모여들어 인근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 생긴다.

[조건]

1.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시작할 것.
2.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것.

- ① 대형 마트는 업체 간 경쟁으로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영세 상인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된다.
- ② 대형 마트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한다.
- ③ 대형 마트는 과도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운송과 소비자 이동 과정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 따라서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 ④ 대형 마트는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유동 인구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인근 점포의 매출 상승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마트와 주변 자영업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 ⑤ 대형 마트는 묶음 포장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소비를 위한 소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신문 기사를 읽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글을 써 보았다.

□ **신문 기사**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게임이나 SNS 기능만 편중되게 사용하고, 사용 시간 또한 조절하지 못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학생의 글**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여러 재미있는 기능들에 푹 빠져 있다 보면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이 성적을 떨어뜨리는 ㉠ 주역이라고 여기시고 우리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

㉡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나쁜 친구일 뿐일까? 사실 우리가 ㉢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목적에 맞게 쓴다면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스마트폰의 인터넷 접속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학습하는 데 ㉣ 쓰여진다면 우리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한다면 스마트폰 중독도 막고, 학습 시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도 하루에 한 시간은 가족과 대화를 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회복해야 한다.

‘좋은 약이라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독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9.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 ②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 ③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④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과정을 드러낸다.
- ⑤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범’으로 바꾼다.
- ② ㉡은 앞 문단과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바꾼다.
- ③ ㉢은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하고 목적에 맞게 쓴다면’으로 고친다.
- ④ ㉣은 피동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쓰여진다면’으로 고친다.
-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다¹ ㉡ [골라, 고르니]

㉠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 땅을 고르다.

㉢ 밭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밭을 고르다.

고르다² ㉢ [골라, 고르니]

㉠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 같다. ㉡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 숨소리가 고르다.

- ① ‘고르다¹ ㉠’의 용례 ‘땅을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유의어로는 ‘메우다’가 가능하겠군.
- ② ‘고르다² ㉠’의 용례로 ‘방바닥이 고르지 않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고르다² ㉢’의 용례 ‘숨소리가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반의어로는 ‘거칠다’가 가능하겠군.
- ④ ‘고르다¹’, ‘고르다²’의 활용 정보에 ‘골라’, ‘고르니’로 나타난 것을 보니 불규칙 용언이겠군.
- ⑤ ‘고르다¹’, ‘고르다²’의 품사 표시를 보니, ‘악기의 줄을 고르다’의 ‘고르다’는 동사, ‘치아가 고르다’의 ‘고르다’는 형용사이겠군.

12. 다음 ㄱ~르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ㄱ. 꽃[꼇], 앞[압]

ㄴ. 맨입[맨닙], 담요[담:뇨]

ㄷ. 안다[안:따], 탁구[탁꾸]

ㄹ. 낳다[나:타], 오+아서→와서[와서]

- ① ㄱ과 ㄴ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홀이불→[혼니불]’을 들 수 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 ③ ㄱ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엎다→[업따]’를 들 수 있다.
- ④ ㄹ의 [나:타]는 자음 축약에, [와서]는 모음 축약에 해당된다.
- ⑤ ㄹ의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아→집에 가[가]’를 들 수 있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누어진다. 명사절은 ‘-(으)ㄴ’, ‘-기’, 관형절은 ‘-(으)ㄴ’, ‘-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인용절은 ‘고’, ‘라고’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며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용례	설명
○ 코끼리는 <u>코가 길다</u> .	⇒ ‘코끼리는’이라는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절이다. ①
○ 친구가 <u>소리도 없이</u> 내 뒤로 다가왔다.	⇒ ‘다가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②
○ 지금은 <u>학교에 가</u> 기에 늦은 시간이다.	⇒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 명사절이다. ③
○ 오늘 <u>급식을 일찍 먹</u> 기는 힘들겠다.	⇒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 ④
○ 현재는 <u>자기가 옳다</u> 고 주장했다.	⇒ ‘현재’의 말을 인용하여 쓴 인용절이다. ⑤

14. <보기>의 예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나는 그를 안다.
ㄴ.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
ㄷ. 방 안에 있다.
ㄹ. 늑대가 양을 물었다.
ㅁ.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 ① ㄱ: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쓴다.
- ② ㄴ: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너는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를 쓴다.
- ③ ㄷ: 반의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방 안에 없다’ 외에 ‘방 밖에 있다’도 가능하다.
- ④ ㄹ: 피동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된다.
- ⑤ ㅁ: 관용적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가 된다.

15. <보기>의 ㉠~㉤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어미를 사용하여 추정, 감탄, 단정, 확인, 의지, 전달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영희: 너 오늘 산에 간다고 했잖아. 오늘 간 거 ㉠ 맞지?

철수: 아니, 못 갔어. 내일은 꼭 가고 ㉡ 말했어.

영희: 그럼 너희 형은?

철수: 아마 ㉢ 갔을걸. 아까 엄마 말씀이 ㉣ 갔다더라고.

영희: 우와. 너희 형은 정말로 ㉤ 대단하구나.

- ① ㉠: 확인 ② ㉡: 의지 ③ ㉢: 추정
④ ㉣: 단정 ⑤ ㉤: 감탄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각이나 회화에서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표현 효과를 동세(動勢)라고 한다. 고정되어 있는 회화나 조각을 보면서 감상자들이 동세를 느끼는 이유는 대상의 움직임에 관한 이미지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몸이 앞을 향해 기울어져 있으면서 왼팔이 올라가고 오른팔이 왼팔 앞에 있다면 다음 상황에서 그 사람이 오른팔을 올리며 건거나 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화나 조각을 접할 때 감상자들은 작품 속 대상의 전후 움직임을 예측함으로써, 대상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세를 느끼는 것이다.

조각가와 화가들은 작품에서 동세를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움직임이 강한 활동적인 장면을 선택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방향감을 암시하는 표현 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같은 대상의 중첩과 변화, 교차 등을 통해 동세를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움직이는 대상과 움직이지 않는 배경을 대비하거나 작은 공부터 큰 공까지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공의 둥근 형상을 중첩하는 등의 표현이 그것에 해당한다.

조각은 3차원의 작품으로, 감상자들은 전후좌우에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므로 대상의 부분적인 움직임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움직임을 직관할 수 있게 된다. 조각가들은 실제 대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운동의 방향에 따라 어느 한 부분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기법으로 동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회화에서는 대상의 형태나 윤곽선을 흐리게 하여 동세를 표현하기도 한다. 사진의 경우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여, 카메라를 흔드는 기법으로 매우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의 동선을 흐르는 선처럼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표현하면 그 속도를 강조할 수 있는데, 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한다.

16.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각과 회화의 공통점
② 예술가와 감상자의 관계
③ 조각과 회화에서의 동세 표현
④ 공간감을 통한 움직임의 표현
⑤ 대상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왼팔을 높이 들고 오른팔로 균형을 잡으며 무릎을 구부려 한발로 서 있는 발레리나를 그린 작품이다. 인물과 배경의 형태와 윤곽선을 흐리게 표현하여 발레 공연 중의 한 장면을 포착한 느낌을 준다.

(나)는 검을 든 전사가 적에게 맞서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순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검을 쥔 오른손과 짝 편 왼손, 굽힌 오른 다리와 길게 쭉 편 왼 다리는 금방이라도 눈앞에 있는 적을 향해 돌진할 것 같다. 상체와 하체에 표현되어 있는 근육은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① (가)는 발레리나의 의상과 팔다리의 윤곽선을 흐릿하게 하여 동세를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군.
② (가)에 그려진 발레리나의 팔다리 모습을 보면서 감상자들은 연속적인 움직임을 머릿속에 떠올리겠군.
③ (나)를 감상하는 사람은 특정 방향에서 인물의 표정이나 근육을 살펴야 동세를 보다 잘 느낄 수 있겠군.
④ (나)의 감상자는 오른손과 왼손,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대비를 통해 강렬한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군.
⑤ (가)와 (나)의 작가는 동세 표현을 위해 움직임이 강한 활동적 장면을 선택한 것이겠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세포 생물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 구성 세포들의 기능이 조절된다. 이 중 내분비계의 작용은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일어난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자는 소화선인 동시에 내분비선이다. 이자 곳곳에는 백만 개 이상의 작은 세포 집단들이 있다. 이를 랑게르한스섬이라고 한다. 랑게르한스섬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β세포와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α세포가 있다.

인슐린의 주된 작용은 포도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도록 촉진하여 혈액에서의 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또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하게 하며 세포에서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지방 생성을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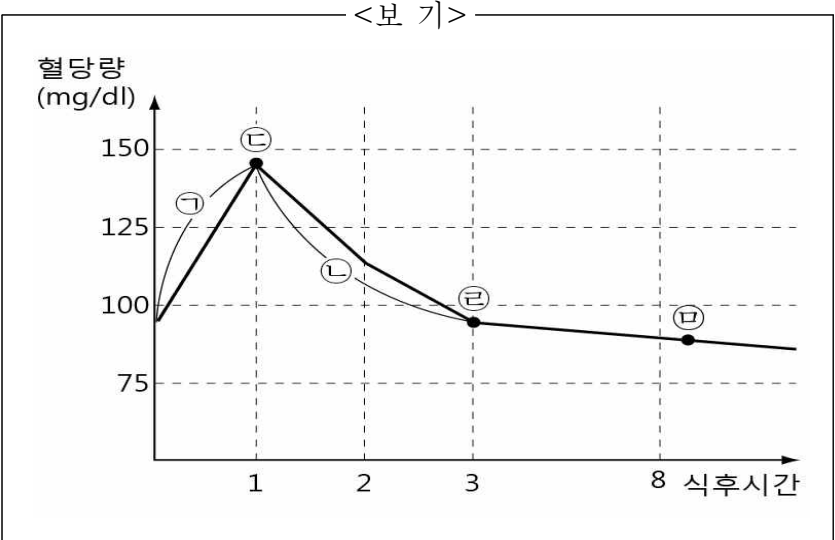
한편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상반된 작용을 하는데, 그 주된 작용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에서의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저장 부위에서 혈액 속으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는 혈당량에 의해 조절되는데 식사 후에는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의 양, 즉 혈당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β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난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흡수하여 세포로 이동시키며 이에 따라 혈당량이 감소되고 따라서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된다. 반면 사람이 한참 동안 음식을 먹지 않거나 운동 등으로 혈당량이 70mg/dl 이하로 떨어지면 랑게르한스섬의 α세포가 글루카곤 분비량을 늘린다.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혈당량은 다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당량이 99mg/dl 이하인 경우 정상으로, 126mg/dl 이상인 경우는 당뇨병으로 판정한다.

포도당은 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통해 이 포도당의 농도를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1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유사한 개념을 분석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 ②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작용을 하는 두 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여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기존의 통념에 대해 반박하며 두 요소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고 있다.

19. <보기>는 식후 혈당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겠군.
 - ② ㉡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에 의한 결과이겠군.
 - ③ ㉢지점에서 혈당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β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군.
 - ④ ㉣지점에서 운동을 한다면 β세포가 분비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겠군.
 - ⑤ ㉤지점에서 혈당량을 확인하면 정상으로 판정할 수 있겠군.
2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인슐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했지요?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인슐린에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 ① 혈액 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② 이자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 ③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빠르게 저장하게 됩니다.
- ④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저장 부위에서 분리시키게 됩니다.
- ⑤ 인슐린이 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의 전국시대는 주 왕실의 봉건제가 무너지고 열국들이 중국 천하를 ㉠ 할거하면서 끝없는 전쟁으로 패권을 다투던 혼란과 분열의 시기였다. 이때 등장한 제자백가 철학은 전국시대라는 난세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세우기 위한 사회적 필요와 인간에 대한 치열한 사유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당대 사상가들은 국가 또는 공동체의 질서 회복과 개인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모색하였을까?

전국시대의 주류 사상가로서 담론을 ㉡ 주도했던 양주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을 위한다는 위아주의(爲我主義)를 주장했다. 이는 ㉢ 사회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인위적인 허식으로 보고 자신의 생명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얼핏 보면 양주의 이러한 사상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무질서한 사회의 원인을 국가나 국가 지향적 이념의 부재로 여기는 데 반해, 양주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삶을 희생하라’는 국가 지향적 이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강력한 공권력을 독점한 국가에 의해 개인의 삶이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통찰하고, 개인은 사회 규범이나 국가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 개인을 희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삶의 절대적 가치를 ㉣ 자각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한비자는 강력한 법치주의(法治主義)로 무장한 국가의 중요성과 절대군주론을 주장했다. 한비자는 군주가 법의 화신이 되어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국가의 혼란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또한 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법은 반드시 성문법 형식으로 만들어져 백성들 사이에 두루 알려져야 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상하귀천을 ㉤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비자는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공권력으로 상벌 체계를 확립하면 상을 얻기 위해 법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된다면, 법치를 통해서 국가는 강력해지고, 동시에 백성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얻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비자가 생각하는 법치의 진정한 의의는 백성을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양주는 국가와 같은 외적 존재가 개인의 삶에 ㉥ 개입 하는 것을 부정한 반면, 한비자는 공평무사한 정신으로 질서를 확립하여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군주 정치를 최선으로 여겼다.

21. 윗글의 ‘양주’와 ‘한비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존재이다.
- ② 개인의 삶이 국가의 제약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 ③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 ④ 개인과 국가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이상적이다.
- ⑤ 사회 질서의 안정과 발전보다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22. 윗글의 ‘양주’와 ‘한비자’가 <보기>의 밑줄 친 인물들에 대해 평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은나라의 신하였던 백이와 숙제는 유가적 관점에서 나라와 군주에 대한 충성과 절의의 대명사로 추앙받고 있다. 주나라의 무왕이 주종 관계를 무시하고 은나라 주왕을 죽여 천하를 평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무왕이 군주에 대한 인의(仁義)를 배반한 신하라고 비판하였다. 백이와 숙제는 도리를 저버린 무왕이 지배하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은둔해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

- ① 양주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규범에 얽매어 개인의 삶을 잃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 ② 양주는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무책임하게 현실을 도피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로 볼 것이다.
- ③ 한비자는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군주를 억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 ④ 한비자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⑤ 양주와 한비자 모두 부당한 국가 권력과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무욕의 처신을 높이 인정하여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고 볼 것이다.

2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 지향적 이념 추구가 개인의 삶을 위협한다고 보았기에
- ② 당대 정치가들이 난세를 극복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기에
- ③ 법과 제도만으로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았기에
- ④ 전쟁으로 인한 제도의 혼란이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기에
- ⑤ 획일화된 문화와 사회 제도가 국가체제 유지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았기에

24.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누어 차지하면서
- ② ㉡: 이끌었던
- ③ ㉢: 스스로 깨달아야만
- ④ ㉤: 꼼꼼히 따지고
- ⑤ ㉥: 끼어드는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두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의 상황이 나아져 만족도가 커진 상황을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파레토는 경제적 효용을 따져 최선의 상황을 모색하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파레토 개선’,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이 있다.

갑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와, 갑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파레토에 의하면 상황 B가 을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갑이 250원을 더 받을 수 있기에 상황 A보다 우월하다. 즉 상황 A에서 상황 B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황 A에서 상황 B로의 전환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 또한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시간당 500원을 받고 을이 시간당 1,000원을 받는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의 임금이 인상되면 이는 파레토 개선이다. 그러나 만약 갑은 100원이 인상되고 을은 10원이 인상되는 상황과 갑은 10원 인상되고 을이 100원 인상되는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레토 이론은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레토 최적은 자유 시장에서 유용한 경제학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한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갑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에서 갑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로의 전환에 대해 협의한다고 가정하자. 을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만족도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 전환에 대해 별로 마음 내켜 하지 않을 것이나 갑은 250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자신이 더 받는 250원 중에서 100원을 주기로 제안한다면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상황 B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다.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레토 최적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파레토 이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파레토 이론의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파레토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개선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26.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희는 사과 6개, 철수는 배 6개를 갖고 있다. 철수는 사과에서 얻는 만족도가 배에서 얻는 만족도의 2배이고, 영희는 사과와 배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며 영희와 철수 모두 서로의 만족도를 잘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 철수는 자신의 배 6개를 영희의 사과 6개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영희는 이에 반대하고, ㉡ 자신의 사과 중 3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철수가 반대하여, 영희는 마지막으로 ㉢ 자신의 사과 가운데 4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안을 철수가 수용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최초의 상황		㉠		㉡		㉢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영희	6개	0개	0개	6개	3개	6개	2개	6개
철수	0개	6개	6개	0개	3개	0개	4개	0개

- ① ㉠에 대해 영희가 반대한 이유는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2배로 증가하지만,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② ㉡에 대해 철수가 반대한 이유는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1.5배 증가하지만,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③ ㉢에 대해 서로 합의한 이유는 영희와 철수의 만족도 모두 최초에 비해 증가하였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 ④ 최초의 상황이 ㉠나 ㉡로 바뀌어도 모두 파레토 개선으로 볼 수 있다.
- ⑤ ㉠~㉢ 중 영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에서 가장 크며, 철수 역시 그러하기에 ㉢를 파레토 최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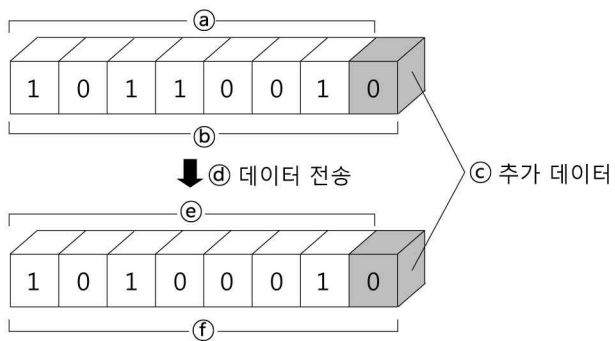
2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의 기회가 많을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경우
- ② 경제 주체 간의 타협보다는 경쟁이 중요한 이유
- ③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
- ④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이기적인 태도가 필요한 이유
- ⑤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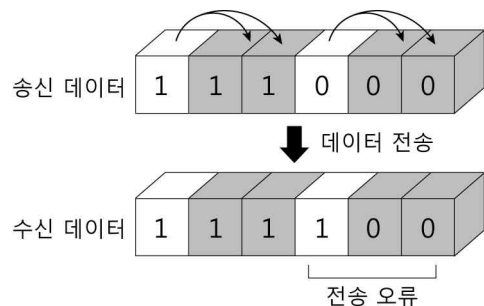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파로 전송되는 신호는 때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고, 안테나나 통신 장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열잡음*으로 원하지 않는 신호가 더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수신기는 잘못된 신호를 받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에 추가 데이터를 함께 보내서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검출하거나 복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크게 자동 재전송 요구 방식과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동 재전송 요구 방식은 송신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 중 1의 개수가 홀수이면 1을, 짝수이면 0의 추가 데이터를 송신 정보 데이터와 함께 보낸다. 수신기에서 받은 수신 정보 데이터의 1의 개수와 추가 데이터의 값을 비교하여 두 값이 다르면 수신기는 전송된 데이터 속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과 같이 7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 번째 데이터 비트가 1이 아닌 0으로 수신될 수 있다. 이때 수신 정보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인데 추가 데이터가 0이므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수신기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의 위치를 알 수 없고, 오류를 정정할 능력 또한 없다. 이 경우 수신기는 자동 재전송 요구를 통해 송신기에 데이터 재전송을 요청한 후 오류를 복구하게 된다.



다음으로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은 송신기에서 전송할 데이터를 위의 그림처럼 각각 두 번씩 복사한 추가 데이터를 송신 정보 데이터와 함께 전송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신기는 수신 데이터에서 복사된 데이터들과 비교하여 다른 값으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해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다. 만약 수신 데이터가 1인데 복사된 데이터들의 값이 모두 0이라면 실제 전송된 데이터는 1이 아닌 0으로, 오류를 고칠 수 있다. 이처럼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은 복사된 추가 데이터를 이용해 수신기가 단독으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 열잡음: 수신기나 전송 선로 또는 전파 매체에서 전자 운동이 열에너지에 의해 동요하여 발생하는 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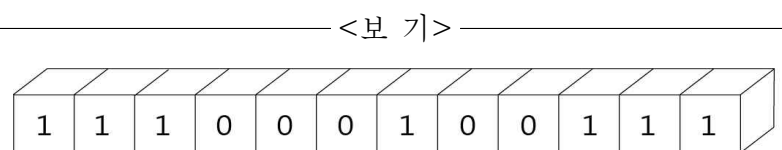
2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 ② 설명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의 원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기술의 변화 양상을 시대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 ④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송신 정보 데이터이다.
- ② ㉡는 전송 오류를 알기 위해 ㉠에 ㉢를 더한 데이터이다.
- ③ ㉢는 ㉡의 데이터 비트 전체의 개수에 따라 값이 결정된다.
- ④ ㉣에서 열잡음으로 인해 전송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에서 ㉢의 값과 ㉣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전송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30. <보기>는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을 통해 전송된 수신 데이터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복사된 추가 데이터의 개수는 모두 8개이다.
- ㄴ. 추가 데이터로 확인하면 송신 정보 데이터는 ‘1011’이다.
- ㄷ. 오류가 발생한 위치는 송신 정보 데이터의 세 번째 데이터 비트이다.
- ㄹ. 송신기에 추가 데이터 전송을 요청한 후 수신 데이터와 비교해 오류를 정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달에도 보름계 달 밝은 밤
앞내강(江)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江) 건너갔소

[A]

강(江) 건너 하늘 끝에 사막(沙漠)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B]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

[C]

사막(沙漠)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C]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뎌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江) 건너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짹짹 얼어 조이던: 강이 얼어 얼음의 부피가 커지면서 서로 밀치는.
* 모래불: 좁고 긴 모래 언덕.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하는 것.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② 첫 연과 마지막 연에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경어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32.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 ② [A]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 ③ [B]는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④ [C]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 ⑤ [C]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강 건너간 노래」는 식민지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를 견디며 버텨내야 했던 이육사의 고뇌와 방황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선달’과 ‘얼어 조이던 밤’은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을 암시하는 배경이군.
- ② ‘어린 날개’는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시인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③ ‘떨어져 타서 죽겠쥬’는 자신의 삶이 ‘노래’의 운명처럼 평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④ ‘사막’은 ‘푸른 하늘’이 덮여 있는 공간으로,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는군.
- ⑤ ‘또 한 가락 어디뎌가’는 ‘노래’가 간 곳을 몰라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군.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었다. 끝없이 단념해 가는 것, 그것뿐인 것 같다. 산 너머 저 산 너머는 행복이 있다 한다. 언제고 그 산을 넘어 넓은 들로 나가 본다는 것이 산골 젊은이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이육사는 산 너머 생각도 잊어버리고 ‘아르네’는 결혼을 한다. 머지 않아서 아르네는 사, 오 남매의 복(福)가진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아르네들은 그만 나폴레옹을 단념하고 셰익스피어를 단념하고 토머스 아퀴나스를 단념하고 램브란트를 단념하고 자못 풍정낭식(風定浪息)*한 생애를 이웃 농부들의 질소(質素)한 관장(觀葬)* 속에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것은 용기를 요하는 일이다. 가계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드디어 온갖 욕망의 불덩이인 육체를 몸쓸 고행으로써 별하는 수행승의 생애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은 무(無)에 접(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아주 반대로 끝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돌진하고 대립하고 깨뜨리고 불타다가 생명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진 뒤에야 끊어지는 생활 태도가 있다. 돈 후안이 그랬고 베토벤이 그랬고 「장 크리스토프」의 주인공이 그랬고 랭보가 그랬고 로렌츠가 그랬고 고갱이 그랬다.

이 두 길은 한 가지로 영웅의 길이다. 다만 그 하나는 영구한 적멸(寂滅)로 가고 하나는 그 부단한 건설로 향한다. 이 두 나무의 과실로 한편에 인도의 오늘이 있고 다른 한편에 서양 문명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있는 가장 참한 조행(操行)* 갑(甲)에 속하는 태도가 있다. 그저 얼마간 욕망하다가 얼마간 단념하고..... 아주 단념도 못 하고 아주 쫓아가지도 않고 그러한 사이에 분에 맞는 정도의 지위와 명예와 부동산과 자녀를 거느리고 영양(營養)도 갑을 보전하고 때로는 표창(表彰)도 되고 해서 한 편(篇) 아담한 통속소설 주인공의 표본이 된다. 말하자면

속인 처세의 극치다.

이십 대에는 성(盛)히 욕망하고 추구하다가도 삼십 대만 잡아서면 사람들은 더욱 성하게 단념해야 하나 보다. 학문을 단념하고 연애를 단념하고 새로운 것을 단념하고 발명을 단념하고 드디어는 착한 사람이고자 하던 일까지 단념해야 한다. 삼십이 넘어 가지고도 시인이라는 것은 망나니라는 말과 같다고 한 누구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도 찬란한 명구냐.

약간은 단념하고 약간은 욕망하고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단념은 또한 처량한 단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에 있어서도 학문에 있어서도 나는 나 자신과 친한 벗에게는 이 **고상한 섭생법**을 권하고 싶지 않다.

‘일체(一切)냐 그렇지 않으면 무(無)냐?’

예술도 학문도 늘 이 두 단애(斷崖)*의 절정을 가는 것 같다. 평온을 바라는 시민은 마땅히 기어 내려가서 저 **골짜기 밑바닥**의 탄탄대로를 감이 좋을 것이다.

— 김기림, 「단념」 —

*아르네: 노르웨이의 작가 비에른손이 쓴 소설 「아르네」(1858)의 주인공으로 감성적이며 먼 곳을 동경하는 젊은이.

*풍정낭식: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뜻으로, 들떠서 어수선하던 것이 가라앉음.

*질소한 관장: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르는 소박한 장례.

*조행: 태도와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단애: 낭떠러지.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의 방법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을 통해 대상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③ 우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 ⑤ 과거를 환기함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5.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많은 아르네’는 욕망하다 단념해 버리는 속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무(無)에 접(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웅의 길로 볼 수 있겠군.
- ③ ‘부단한 건설’은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고상한 섭생법’은 적당히 단념하고 적당히 욕망하는 것으로 글쓴이가 긍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군.
- ⑤ ‘골짜기 밑바닥’은 모든 단념과 욕망을 끝낸 후 도달한 평온한 삶의 단계라 할 수 있군.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오 영감이 키우던 오리 ‘간둥이’는 장석조네 집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가 진씨에게 팔린다. 그런데 그 후 간둥이가 윗집 금반지를 주워 먹었다는 소문이 돌고 간둥이에 대해 장석조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간둥이가 자란 이 뜰이 누구네 집 안팎인 게야? 집주인 땅이지 않아? 그러니깐 가설라므네 집주인인 장씨에게도 얼마간 쥐어 줘야 뒤탈이 없다구.”

“여름 내내 오리똥 냄새 때문에 코 찌매쥐고 살아온 우리는 우뚝고? 우리 모가치도 쏴쏴창게 내놔야 할걸.”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던 광수 애비가 벌떡 일어나 뒤축을 꺾어 신은 구둣발로 땅바닥을 걷어차 흙부스러기를 오리한테 끼었으며 주절거렸다.

“젠장 이 오리통이 바로 내 방 앞에 놓여 있어가지구 ㉠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다구요? 말은 내놓고 안 했지만서두. 이 참에 그냥 넘어가면 내게도 다 생각이 있대구요.”

그러자 끝방 최씨가 혀를 차며 끝탕을 하였다.

“㉡ 에그 벼룩이 간을 내먹겠다고 혀는 편들이 나을 성신네..... 쫓쫓.”

<중략>

뭐라고나 할까. 미운 오리새끼에서 위풍당당한 거위, 그것도 황금 깃털을 지닌 거위쫄으로 변신한 것 같았다. 그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도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비현실적으로 비쳤다. 입을 반쯤 헤벌리고 허공을 보는 사람, 팔을 높이 쳐들고 겨드랑이를 굽는 사람, 하품을 하느라 입을 손으로 가린 이, 그리고 장화를 거꾸로 들고 터는 사내.

그러나 그 광경의 평화스러움은 오래 가지 못했다.

“누가 진동환이요?”

대뜸 거친 반말을 해대는 제복한테 압도당한 사람들은 이제 막 깨어난 사람들처럼 굼뜨게 움직였다. 그리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저요만..... 지 이름 석 자가 진동환이라고 합니다만......”

“그럼 빨리빨리 자리 털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서로 좀 갑시다.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

“야정비*라든 야그 다 끝났을 텐데......”

“내가 한가롭게 야정비나 받으러 온 것 같소?”

“그럼..... 녀들 다 노는 공휴일날 뭘 바쁜 일이?”

“하따 말 많은 것 보니 진짜 공산당 걸네. 가보면 아니깐 얼른 따라오기나 하쇼.”

진씨는 점심 나절이 다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반장 노릇을 하는 갑석 아버지를 파출소로 보내 동태를 살펴보고 오도록 했다.

“진씨가 아매도 장물애비로 몰린 모양이더라고. 곧 풀려난다고는 허는데 모르지 뭐. 어디까지나 그때 가봐야 허는 게 경찰 일이니.”

“와요?”

“건 내도 잘 모르는 일인데, 듣자 하니 저 윗집에서 찌른 모양이야. 뭐? 우리가 뭘 삼켰다며? 그제 자기 집에서 나온 건데 진씨가 돌려줄 생각은 않고 버틴다꼬 했던 모양이던데 이웃간에 좋은 말로 끝을 볼 일이지 그게 뭐꼬?”

“아니, 즈그덜이 증말 오리 뺏속에 거시기가 든 걸 확인이나

해보고 하는 소릴란가?”

“그게 아니겠지. 여기서 하두 떠들어싸니까 지레짐작으로 후리고 나오는 거겠지 뭐. 내 참 드러워서. 한 동네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진씨는 간단한 경위서만 받아 쓰고 나와 혼잣소리를 하며 건물들 올라왔다.

“우짤 일이고?”

“우짤 일은요? ㉠ 저 집구석들에서 지들 장롱에 고이 처박아 두고서두 수챗구멍*이니 어쩌니 하면서 간룽*을 떨어싼 거지.”

“사람을 우짜 보고 쫓쫓. 썩글라쓰 끼고 거들먹거리고 살든 단가? 근데 자네 놀라지는 말거라이. 자네가 끌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진동한듯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며 한 눈을 판 사이에 간둥이가 갑자기 달려든 개한테 물려서 피투성이가 돼고 난리를 직었는데 다행히 다리만 조금 다쳐 목숨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마. 놀랐으니깐 진정만 시키면 될 거라.”

“우편 집 랜데요?”

“그거이 저어, 노란 대문집 개였는데 말이여. 우연히 일이 그렇게 돼 부린 모양이더구만.”

진씨는 부엌에서 간둥이를 꺼내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뭔가 분하기도 하고 슬픔도 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간둥이를 라면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디론가 갔다가 해거름이 다 돼서야 타박타박 돌아왔다.

“우데 갔었노?” / 기다리고 있던 쌍용 아범이 물었다.

“서강…….” / “서강이라니?”

“아 서강 모르요? 백삼십팔 번 요 앞에서 타른 종점까지 가잖아요.”

“건 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한강에서 맘대로 노닐며 살다 죽으라고요. 와, 안됐십니까?”

“㉡ 기껏 돈 줘서 사들여선 몸보신도 앓고 그 짓을?”

“㉢ 아무리 짐승이지만 벌써 몇 벌 죽임을 시키는 게요. 도무지…… 사람들끼리 맘 상하게 허구 말이유. 그리고 나니 내 마음속이 어쩌나 후련한지 십 년 폐병이 다 낫는 것 같더라고요.”

진씨는 말을 마치고는 뒤돌아서서 받은기침을 연달아 쏟아냈다. 아마도 찬 강바람을 너무 많이 쐬 탓이었던 모양이다.

— 김소진, 「장석조네 사람들」 —

*야경비: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 따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비용.
*수챗구멍: 집 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의 구멍.
*간룽: 재간 있게 능청스러움.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특정 소재를 둘러싼 문제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사투리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3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씨는 간둥이가 특별한 오리라는 것을 알고 돈을 주고 사들였다.
 - ② 간둥이 뱃속에 금반지가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진씨가 곤경에 빠진다.
 - ③ 진씨가 파출소에 간 사이에 사람들은 간둥이를 잡아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다.
 - ④ 진씨는 간둥이가 다친 것에 화를 내며 간둥이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 ⑤ 사람들은 진씨로부터 간둥이를 빼앗기 위해 간둥이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장석조네 사람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인의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장석조네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선한 심성을 갖고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사소한 이득에도 초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일상적 다툼은 극한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작가의 인도주의적 시선으로 마무리된다.

- ① 한강에 간둥이를 놓아준 진씨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어.
- ② 진씨를 장물애비로 신고한 윗집 사람들을 통해 각박해진 세태를 짐작할 수 있었어.
- ③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하는 경찰을 통해 개인 간의 일상적 시비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어.
- ④ 장석조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소한 이득에도 초연할 수 없는 가난한 주변인들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
- ⑤ 진씨의 안위를 궁급해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주는 정을 느낄 수 있었어.

39.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간둥이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광수 애비의 속내가 드러난다.
 - ② ㉡: 간둥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나치다고 보는 최씨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③ ㉢: 윗집 사람들로 인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 ④ ㉣: 간둥이의 이용 가치를 잘 모르는 진씨를 조롱하고 있는 쌍용 아범의 태도를 보여준다.
 - ⑤ ㉤: 사람들의 말 속에서 몇 번이나 죽임을 당했던 간둥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있으라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
- (나) 임 이별 하올 적에 저는 나귀 한치 마소
가노라 돌아설 때 저는 걸음 아니런들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오
— 안민영 —
- (다) 내게는 원수가 없어 개와 닭이 큰 원수로다
벽사창 깊은 밤에 품에 들어 자는 님을 짧은 목 늘여서
꽤 꽤 쳐 울어 일어 가게 하고 적막 중문(重門)에 온 님을
물으랴 나오랴 캉캉 짚어 도로 가게 하니
아마도 유월유두 백종(百種) 전에 스러져 없이 하리라
— 박문옥 —

4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다.
- ③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 ④ 이별로 인한 삶의 무상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⑤ 힘든 상황을 낙천적인 자세로 극복하고 있다.

4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는 영탄과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의 ‘제 구태여’는 행동의 주체를 중의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화자의 행위와 심리를 대비시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저는 나귀 한치 마소’는 다리를 절며 느리게 걷는 ‘나귀’를 통해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 ⑤ (나)의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애타는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42.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행궁견월상심색(行宮見月傷心色)*의 달만 비쳐도 님의 생각
춘풍도리화개야(春風桃李花開夜)*의 꽃만 피어도 님의 생각
야우문령단장성(夜雨聞鈴斷腸聲)*의 비 죽죽 와도 님의 생각
추절(秋節)가고 동절(冬節)이 오면 명사벽해(明沙碧海)를
바라보고
뚜루를 짚룩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에도 님의 생각
앓어 생각 누어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전혀 없어
모진 간장의 불이 탄들 어느 물로 이 불을 끌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 작자 미상, 「춘향가」 —

* 행궁견월상심색: 행궁에서 달을 보니 사뭇 구슬픈 느낌이 들.
* 춘풍도리화개야: 복숭아꽃, 오얏꽃이 활짝 핀 봄의 으스스한 밤.
* 야우문령단장성: 밤비에 울리는 풍경소리가 간장을 도려내는 듯함.

- ① (다)와 <보기>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다)와 <보기>는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군.
- ③ (다)와 달리 <보기>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보기>와 달리 (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보기>와 달리 (다)의 의성어는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까치가 새로 보금자리를 짓고 온갖 날짐승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 적에 심술이 사납고 욕심 많은 비둘기만 초청하지 않았다. 이에 비둘기는 까치에게 불만을 품고 까치의 집을 빼앗으려고 잔치에 와서 횡포를 부린다.

비둘기가 할미새를 꾸짖어 이르되,
“너는 들어라. 나이 칠십이 넘은 것이 소년들과 함께 무엇을 구경하며, 무엇을 먹자고 와서 깔깔대며 끼여있고. 아무리 방정맞고 생각 없는 것인들 그런 행실이 어이 있을꼬.”
하되, 할미새 무리히 물러가니라. 또 섬동지 두꺼비를 꾸짖어 가로되,
“네 모양을 보니 키는 세 치가 못 되고 능히 일보를 뛰지 못하고 한갓 눈만 꺼벅거리며, 파리나 잡아먹을 것이어늘 이 잔치에 와서 무슨 면목으로 참견하고.”
하며, 인하여 좌중을 무수히 헐뜯고 욕하니 까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비둘기를 후려치며 꾸짖어 가로되,
[A] “불청객이 자리하여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분별이 무슨 일이고. 내 음식에 내 술 먹고 이렇듯 헐뜯고 욕하니, 너 같은 심술이 어디 있으며 염치가 바야 없다. 나는 고사하고 동네 늙은이와 남의 늙은 부인네들 모르고 헐뜯으니, 너 같은 무도한 놈이 어디 있으랴. 고서(古書)를 듣지 못하였느냐. 내 집의 노인을 공경하여 그 마음이 다른 집 노인에게 미치게 하라는 성인의 말씀이 있거늘, 전혀 사리를 알지 못하니 너 같은 놈이 어디 있을꼬.”
하니 비둘기 이 말 듣고 대로하여 달려들며, 두 발길로 까치를 냅다 차니, 만장고목 높은 가지에서 떨어져 즉사하는지라. 이때에 암까치 대성통곡하며 달려들어 비둘기를 쥐어뜯으니, 여러 비금*들이 달려들어 비둘기를 결박하고 인하여 관아에 고발하니라.

<중략>

군수 증인들을 불러들여 물을 제 할미새 생각하되,
‘지은 죄를 사실대로 말하면 흉악한 비둘기에게 이 늙은 것이 구박을 받을 것이요 감추거나 숨기면 중형을 당할 것이니, 노망한 체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이 좋은 계책이다.’
하고, 쉼 머리에 먹칠하고 연지 발라 꾸미고, 행주치마 엉덩이에 매고 뜰 아래로 들어갈 제 뽕죽한 주둥이를 호물떡호물떡하며, 휘둘러 갈짓자로 걸음하여 무수히 절을 하며 가로되,
[B] “듣자온즉 사또님이 수청을 소녀로 들라 하신다 하오니 이렇듯 엄하게 명령하시지 않더라도 어느 영이라 거역하리이까. 소녀의 방년이 지금 늙지도 아니하고 젊지도 아니할뿐더러 나이 십오 세부터 칠십이 넘도록 벼슬아치마다 수청 들었사오니 어찌 즐겨 거행치 아니하오리이까.”
하며, 잠시도 엉덩이를 진정치 못하거늘 군수 그 거동을 보고 반만 웃으니 할미새 모자란 체하고 다시 여쭙오되,
“세상사를 생각하면 가히 우스운 것이 늙으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라가신 구관 사또는 색 고운 젊은 것만 취하옵고 돌아보지 아니하오매 겨울밤 찬 바람에 독수공방하올 적과 봄바람 도화 피는 밤이며 가을 밤에 오동잎 지는 적에 늙고 늙은 수심 절로 나매 참으로 진정 서럽더니 천우신조(天佑神助)하와 사또님이 수청들라 하옵시니 반갑기도 측량없고 즐겁기도 그지없사외다.”

하거늘 군수 크게 웃어 가로되,
“노망 들린 할멈이라.”
하고, 등 밀어 내치매 할미새 거동 보소. 살기를 모면하고 엉덩춤을 들까불며, 뛰어 달아나니 그 거동 보는 자 뉘 아니 웃으리요. 이때에 군수 여러 증인들을 모두 불러 문초하였으나 사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고민하더니 형리 따오기 여쭙오되,
“과연 본방 풍헌을 불러 물으시면, 알 듯하여이다.”
군수 옹케 여겨 즉시 술개미 풍헌을 잡아들여 물으니 술개미 아뢰되,
“소생은 풍헌의 직책을 맡은 지 불과 몇 개월에 매일 나라에 바칠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에 밤낮으로 분주하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혹 병아리 마리나 얻으면 소생이 먹지도 않고 관청에 바치오며, 삼사월 긴긴 봄날에 굶고 지내는 날도 종종 있나이다. 그러므로 까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신은 가지 못하였사오니 그간 사정은 알지 못하옵거니와 미련한 소견에는 초산에 모진 범이 아무리 날래어도 독 틈에 쥐 잡기는 작은 고양이만 못하옵고 풍헌이 아무리 똑똑히 살핀다 해도 동네 일 알기는 동수(洞首)만 못하오니 동수를 잡아들여 물으시면 그 진위를 알 듯하외다.”
아뢰거늘 군수 옹케 여겨,
“즉시 동수를 잡아들이라.”
하니라.

차시에 두민* 섬동지의 이름은 두꺼비요, 자는 불룩이라. 일찍 중국 병서와 병법에 능통하는지라. 동지의 의사가 창해 같아 그 큰 일도 옹케 하고 옹은 일도 그르게 하더니 마침 비둘기의 처자 동생이 심야에 찾아가 금백주옥(金帛珠玉)과 온갖 비단을 많이 주며 이르되,
“동지님의 바다 같은 도량으로 이 일을 주선하와 아무쪼록 장난을 하다 잘못하여 죽인 것으로 하여주옵소서.”
동지 답하여 가로되,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하였으니 염려 말라. 내 들으니 책방구진과 수청기생 앵무새가 군수 영감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다 하니 금은보패를 드려 이리저리 방법을 써 가며 여차여차 하자.”
하고 약속을 정하고,
“각청 두목과 제반 관속에게 뇌물 쓰고 이리이리 하면 암까치 한 마리가 어찌할 수 없으리니 그런즉 자연스럽게 장난을 하다 잘못하여 죽인 것이 되리라.”
비둘기 크게 기뻐하여 그 말같이 하니라.

- 작자 미상, 「까치전」 -

* 비금 : 날짐승.
* 두민 : 동네의 나이가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둘기의 처자 동생은 두꺼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 ② 술개미는 자신의 잘못을 두꺼비에게 떠넘기고 있다.
 - ③ 군수는 형리 따오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암까치는 남편이 억울하게 죽고 과부가 되었다.
 - ⑤ 비둘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44. [A]와 [B]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비유를 활용하여 상대를 치켜세우고 있다.
- ② [A]와 [B]는 윤리적 도리를 내세워 상대를 질책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앞으로 닥칠 부정적 상황을 암시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자신의 의도를 숨기며 말하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상황을 과장하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까치전」은 까치의 죽음에 대한 두 번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 송사소설이다. 특히 1차 송사는 뇌물과 청탁이 오가고 무능한 관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공정한 판결로 끝난다. 이를 통해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 탐관오리와 손잡고 선량하고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사회상을 풍자한 것이다.

- ① 암까치는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게 피해를 입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군수는 무능한 관리라 할 수 있겠군.
- ③ 할미새와 같이 증언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인물로 인해 공정한 판결이 어려워졌겠군.
- ④ 비둘기를 결박하는 비금들의 등장은 탐관오리를 응징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없애려는 서민들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두꺼비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로, 뇌물을 받고 청탁에 관여하는 부정한 세력으로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